

시연(施連) 칼럼

이신벌군以臣伐君, 불사이군不事二君을 놓지 못한 고려의 절신絕臣 송고松阜 선조의 사상思想

묘갈명墓碣銘으로 본 송고松阜 선조先祖



글 : 권오신
칼럼니스트

송고(松阜) 선조(先祖)의 시조(始祖)는 태사공(太師公) 휘(諱) 행(幸) 이시다.

증조(曾祖) 朝(諱) 혁(奕)은 증직 이조참판(吏曹參判)이며 영가군(永嘉君)이요, 고려(高麗) 문하시중(門下侍中)이셨던 할아버지 휘(諱) 용일(用一)은 증직이 좌참찬(左參贊)이며 시호(溢號)는 희경(僖敬)이시다. 아버지 휘(希正)은 증직이 좌의정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고려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이 판사(判事)에 이르렀고 조선(朝鮮)이 개국 되자 백죽당(柏竹堂) 배상지(裴尚志), 두문동 72현(公)과 탄식(歎息)하면서 “나라가 터만 남았으니 우리는 어디로 갈고”라는 긴 탄음을 남기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안동(安東)에 내려오다 면준 곳이 지금의 예천군 용궁리 피아골길 염송산(廉松山)이다.

이때가 918년에 개국한 고려 왕조가 문을 닫았던 1392년이다.

스스로 송고(松阜, 송도의 언덕을 뜻함)로 호를 짓고 염송산(廉松山)을 염송산(念松山, 고려의 수도 송도를 생각)으로 산 이름을 바꾸었다. 살아서는 동구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은거(隱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염송산이 영남(嶺南)은거지의 상징이 되었다.

보첩(譜牒)에는 이태조(李太祖)는 물론 형제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잡은 태종이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과 학경도(咸鏡道) 감사(監司)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고지를 내렸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익기(隠記), 비석 뒷면에 새긴 글에 적었다.

벼슬아치 명부(名簿)인 사판(仕版)에 대사성(大司成)이라고 했으나 아마도 공공이 고려의 구신(舊臣)으로 망복(罔僕)의 뜻을 지키려고 여러 번 나라에서 불렸으나 나가지 않는 한편으로는 아드님에게 그 관직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아! 공의 언행(言行)과 지질(志節)이 반드시 후세에 전해질 일이었으나 공의 손자인 휘 산해(山海)가 사육신(死六臣)의 화(禍)로 순직(殉職)하면서 모두가 소실(燒失)되어 서지(書誌)나 아름다웠던 시(詩), 문장가(文章家)로 남긴 글은 물론 이요, 찬란(燦爛)한 업적(業績)이 나타나지 못하니 후손으로서는 깊은 회한(悔恨)이 될 뿐이다.

묘갈명(墓碣銘)에서 명시한 것처럼 송고(松阜) 선조의 이신벌군(以臣伐君), 불사이군(不事二君)은 좌윤공과종중(佐尹公派宗中)을 지탱하는 정신이 됐다. 조선 전기 단종(端宗) 사화에 연루된 죽림(竹林) 사정공(司正公) 선조(先祖)는 죽음의 길(竹林公)을 선택하셨거나 유배(司正公)로 선대가 묻힌 고현(安東禮泉)을 떠나야 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송고(松阜) 선조의 학문(學文)과 사상(思想), 시문(詩文)이 한쪽도 남겨지지 않았다.

손자이신 죽림공(竹林公)이 단종(端宗) 사화로 자진하면서 정경부인(貞敬夫人)이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닥치기 전에 서재(書齋)에 보관된 서지(書誌)를 불태워버리면서 사라져 버렸다.

만집이 회를 입게 되었으니 선대(先代)가 간직했던 문집(文集)들이 보전될 수 없었다. 그때 타다 남은 문방사우(文房四友)나 파손된 문집들은 예전 절동 송고(松阜) 선조와 그 아드님이신 조선대부(朝散大夫) 경력공(慶曆公), 손자이신 이조판서(吏曹判書) 죽림공(竹林公) 묘소 밑자리에 무덤같이 불룩 솟아 나온 흙더미에 묻혀있다.

좌윤공파(佐尹公派)가 꿈꿔왔던 절신(節臣)의 도리와 제세안민(濟世安民, 세상을 구하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함)의 치도(治道)는 조선 초기부터 막히게 되고 후손들은 살아남기 위해 헤어졌다.

말하자면 폐관(廢官)이 돼 버렸다. 당시의 그화가 죽림(竹林) 사정(司正) 선조를 가르치신 종조부(從祖父)이시자 세종(世宗) 임금 때 좌의정(左議政)이셨던 문경공(文景公)에게도, 형(兄), 판도공(判圖公)과 동생(同生), 흥원현령(興原縣令) 공치(公智) 등 가까운 친인척들에게도 미쳤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의 독수(毒手)를 피해 경주와 김천(金泉) 조마면(長巴面), 영양(英陽), 원주(原州), 고성(固城), 영주(榮州) 등지로 흘어져 살게 되는 등 사회의 후유증은 100년이나 이어졌다.

이들은 개풍군(開豐郡)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두문동(杜門洞)이다.

이들은 개풍군(開豐郡) 광덕산 부조현(不朝峴) 고갯길에서 이태조(李太祖)가 보낸 조복

을 벗어 던져버리고 두문동에 들어가 버렸다.

고려 유신들의 학덕(學德)을 흡모한 태조 이성계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신하(臣下)들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끝나 나오지 않자 광덕산에 불을 지르고 두문동(杜門洞)을 불태워 버렸다.

당시 불에 타 숨진 유생들이 72명이라 해서 ‘두문동(杜門洞) 72현’이란 말이 생겼다.

조선이 개국, 안정기에 들었을 시기에도 사라진 나라(고려高麗)에 충성을 다하고 절개를 지킨 72인의 유신(遺臣)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절개(節概)와 충의(忠義)의 표상이 됐다. 이들을 일러 두문동 72현이라 하며 “두문불출(杜門不出):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음”이라는 어원(語原)이 됐다.

정성을 다해 회유하고 설득하였으나 끝까지 두문불출(杜門不出)한 개성 유생(儒生)들에게 배신(背信)감을 느낀 태조 이성계는 그로부터 100년간 개성 유생(儒生)들에게 과거(科擧)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 개성 유생들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훗날 그 유명한 “개성상인”의 전신이 된다.

당시 막내로 나이가 가장 어렸던 명상황희(당시 30세, 1392, 고려의 마지막 벼슬은 별정)를 두문동 고갯길에서 내쫓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송고(松阜) 선조는 이들보다 무려 여섯 단계 이상 높은 벼슬(관사판사: 고려 6부나 개성부의 수장)의 차이로 남하길을 선택하신 것으로 해석된다.

송고공(司正公) 후손들은 지금도 한국의 사대부(士大夫)가에서 마지막 관직(문과판사文科判事)명을 딴 묘호 대신 예천피아골에서 지은 자호(自號, 스스로 지은 호) 송고공(松阜公)을 즐겨 쓰고 있다.

왕(王)이 내린 벼슬을 다섯 번이나 물리친 일은 개국(開國) 초기의 무단정치(武斷政治) 상황에선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송고공(松阜公)의 이런 정신은 정치인이 나아익 앞에선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반칙(反則)의 고수(高手)들, 지금의 정치인들, 행정관료들이 살피야 할 정신일 것이다.

<자료출처: 태종실록太宗實錄, 예천군지 祿川郡誌, 안동권씨대종보安東權氏大同譜, 판사공묘갈명判事公墓碣銘, 유하비명 遺墟碑銘>

착한 임대인 안동권씨 정조공파종중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강력한 권고로 대부분 국민이 비대면 생활을 지향하고 또한 각종 모임 및 사회적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각종 영업점에는 고객이 급감하는 등 임차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3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조공파(회장 권영택)에서는 종종 임대건물 11개소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고충을 함께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 전직 회장들이 협의하여 5월분 임대료(1천2백3십만원)를 사감하여 주고 임차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 바 있다.

이에 임차인들은 훤히한 문준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안동 시내 주요 요소에 “착한 임대인 안동권씨 정조공파종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권순복 정조공파 총무부장〉

안동시내 6개 파종회장들 일곱 번째 회의 가져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이 일곱 번째 모임을 갖고 회의를 가졌다.



6월 5일 오후 6시 안동시 당북동 제비원로 ‘부창한 정식’ 식당에서 권계동 파종회장협의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오수 대종회 고문,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기원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 등 모두 11명이 참석하였다. 권오수 대종회 고문은 게스트로 초청하였고 권인탁 파종회장협의회 고문은 개인 별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먼저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자유총연맹에서 열린 대종회 제46차 정기총회 때 일어난 상황을 소상히 전했다. 현 권해옥 후보가 만장일치로 제18대 안동권씨대종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정관에 따라 대종회 수석부회장에 당연직으로 선임되었다. 아울러 안동권씨 15개 파회장 가운데 앞으로 일부 회장들이 대종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원래 지난 2월 20일 6개 회장 일곱 번째 모임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무기연기 하였다가 최근 경북도내 코로나가 주춤하자 모임을 오랫동안 미룰 수 없어서 오늘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오늘 소찬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파종회장은 저녁 만찬을 빛내기 위해 프랑스제 코냑(cognac) 1병을 가져와서 참석자 전원에게 맛을 보이자 모두들 “향기와 술맛이 좋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지난 4.15 총선 때 안동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안동권씨들이 타후보 캠프에 가서 일을 하는 등 사분오열(四分五裂) 현상을 막는 바람에 종친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지 못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안동종친회 족친들에게 모이고, 뭉치고, 하나 되고 입버릇처럼 외쳤던 슬로건이 이번 총선에서 일부 족친들이 흘러지는 바람에 큰 실망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권숙동 회장이 외친 회장들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저녁 식사는 북어국을 곁들여 정식을 먹으면서 정답을 나누다가 해어졌다. 다음 여덟 번째 모임은 오는 7월 7일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이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50년 전통의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대표번호 : 02-3472-5915 홈페이지 : www.dygroup.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5층 대양그룹